

2007 꿈·을·쓴·다

6 '공익 미술' 일구는 '소망의 빛 프로젝트'

골목 누비며 온누리에 빛을...

최근 갤러리가 아닌 삶의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공미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지난해 공공미술이 선 보였지만 공익이나, 공공시설에 작품을 전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정착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망의 빛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큐레이터 이미숙씨와 서브매니저 임아영, 작가 정선희씨(사진 왼쪽부터)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양동 통샘마을을 둘러본 뒤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같은 공공미술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과 호흡하는 '공익 미술'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 지난해 결성된 '소망의 빛 프로젝트'가 그들이다. 전남대 문화전대학원 김종현 교수와 큐레이터 이미숙씨, 작가 정선희, 박유복, 박유진, 김영태, 이민남, 황인옥, 윤익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산업·예술 접목한 '광 아트' 작품 선봬 시민들 삶터에 예술향기...연중 빛 주제전

불리는 골목에 도자기와 빛을 접목한 설치작품을 놓을 예정이다. 이미숙씨는 장애우들의 보급자이던 살림공공체에 영상작품을 들여놓고, 위치 환씨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난간에 테이빙 작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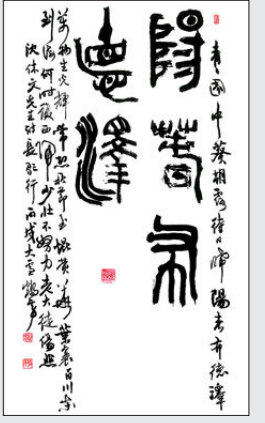
함과 동시에 구간에는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갤러리가 될 것이다"며 "이 작업을 계기로 시민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공익미술이 광주 전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망의 빛'은 1단계 통샘마을 작업을 끝나는 대로 오월정신을 형상화하는 '인권의 빛'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름에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침터에서 '축제의 빛'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중 내내 빛을 주제로한 공익미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우회 서예 30년전

16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호남 서예의 명맥을 이어온 연우회(연우회·회장 나중진)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학정 이돈홍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우회는 지난 1977년 결성 이래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과 추천작가 50여명을 배출하는 등 호남서예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돈홍 작 '장기(長契)'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정웅씨 영암군에 미술품 413점 기증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하정웅(사진)씨가 평생 수집한 미술품을 선친의 고향인 영암군에 기증해 화제다. 영암군은 "재일교포인 하정웅씨가 40여년간 수집한 미술품 413점을 군에 기증하고 앞으로 300여 점을 더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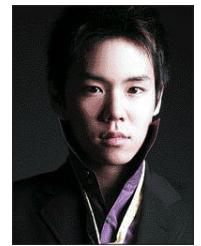
하정웅씨

하씨는 선친의 고향인 영암군의 문화발전과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하게 됐다. 기증작품은 재일 화가 손아유(孫雅

由·1949~2002)씨의 작품 178점과 오카나와 도에가 나가가와 이사루(中川伊作·1899~2000)의 남만(南蠻) 도자기 88점 등이다. 재일교포 2세인 하씨는 지난 1993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광주시립미술관에 미술품 2천여 점을 기증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벤 김 피아노 연주회 15일 음악감상실 한울림

지난해 제 55회 독일 뮌헨 ARD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벤 김(24·사진)이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립 음악감상실 한울림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엔 열리는 벤 김의 무대는 대형 극장이 아닌, 연주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음악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사랑하는 형의 여행에 즈음해 보내는 카프리치오'와 베토벤 '소나타 4'



벤 김

벤 내림마장조' 등이다. 재미교포 2세로 다섯 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벤 김은 지금까지 불티 못에 심포니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피아노 음대 연주자 과정에서 레온 프라이어와 문용희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관람료 1만원, 062-375-22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1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상가 사무실 임대. 위치: 유동로터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5층건물(4,5층 임대완료), 각층당 165평(분할가능). 임대보증금의 50%, 은행대출알선.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010-7623-1100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ong, LC Tower, Ilga, Minyeon, Geumgang, Toowo, and Jungwoo.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